

제6회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전시회

(The 6th Computer/Software Exhibition of Korea)



제6회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전시회가 정보통신업계의 최대 행사라는 이미지를 갖고 지난 6월27일~7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보문화의 달 최대행사로 열린 동전시회는 체신부가 주관하고 전자신문사와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참여업체만해도 국내 업체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호주, 대만 등 5개국에서 220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참관인원도 18만명에 이르렀다.

출품품목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응용 S/W를 포함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주변기기, 전문기술서적 및 잡지를 포함 총 8,000여점의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특히 외국업체가 대거 참여함으로써 국제전시회로 발돋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가 공인한 제6회 한국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선보인 입상작품들도 컴퓨터 관련 첨단기술의 국내 현주소와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해 준 좋은 기회였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그 규모에서 지난해 8,950m²에서 1만 368m²로 크게 확장됐으며 부스도 570개에서 610개로 늘어나 외형적인 성장과 출품품목 또한 컴퓨터와 S/W 영역에서 통신기기, 주변기기, 컴퓨터관련 소모품, 관련서적 등으로 크게 발전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 공모전을 통해 국내 첨단제품을 한자리에서 선을 보여 질적향상을 꾀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전시회 일정에 따라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개최된 세미나는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가 함께 참여 한국컴퓨터연구조합, 케미시스템, 호주 등의 업체가 주관 S/W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크게 제고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서
정보산업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물론 국내관련산업의 가격경쟁력,
기술력확보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활로를 개척하고 기술력 축적을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를 연결고리로 하여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국내정보산업과 호흡을 같이 해 온
동전시회는 국내산업의 발전의 기폭제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이제 이 전시회는 국내 범주를 벗어나
국제적인 전시회로서 수출의 길도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그야말로 정보산업 발전의 초석을 이룰 것은
물론 정보산업의 인식제고와 저변확대에
기여했었다고 볼 수 있다.